

세계유산코스 - 호류지



- ① 금당
- ② 오층탑
- ③ 대강당
- ④ 다이호조인
- ⑤ 유메도노

세계유산코스 - 호류지 (약 3 시간)

【교통편】 나라시내에서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면 된다. 전철로 갈 경우 JR 나라역에서 전차를 타고 호류지역에서 내린다(210 엔). 약 10분 간격으로 운행. 호류지역에서 호류지까지는 걸어서 25분, 버스로 8분(170 엔). 버스로 갈 경우 긴테쓰나라역 8번 승강장에서 버스를 타고 호류지까지 약 40분 걸린다(760엔).

「호류지(法隆寺) 절」 [1000 엔]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다. 현재의 가람은 8세기초에 완성되어 한번도 전화에 휩싸인적 없이 옛모습을 그대로 오늘날에 전하고 있다. 7세기 일본은 중국, 한반도와 활발하게 교류하여 건물, 벽화, 불상 등에 많은 문화적 영향을 받았으며 특히 백제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경내는 크게 동원과 서원 두 부분으로 나누어 지는데, 서원에 있는 오층탑과 금당은 반드시 볼 것.

①금당(金堂) - 본존을 모신 곳은 천개(天蓋)에 의해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오른쪽부터 약사여래좌상, 석가삼존상(한반도에서 건너온 도리붓시(止利仏師作)가 만들었다고 전해짐), 아미타여래좌상이 안치되어 있다. 내부에 그려진 벽화는 고구려에서 건너온 담징의 작품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화재로 인해 많은 부분이 소실되었으며, 현재의 벽화는 재현된 것이다. 불당내에 벽화를 그리는 것은 당나라시대의 유행이었으나 현재 중국에는 남아있는 것이 없다. 내부는 어두워서 손전등이 필요하다. ⇒ ②오층탑(五重塔) - 1층에는 동서남북 각 방향으로 인도, 중국의 영향을 받은 8세기 나라시대의 소상(塑像)이 모셔져 있다. ⇒ ③대강당(大講堂) - 현재 남아있는 건물은 10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본존은 약사여래좌상이다. ⇒ ④다이호조인(大宝蔵院) - 구면관음상(九面觀音像), 몽위관음상(夢違觀音像), 다마무시노주시(玉虫厨子), 다치바나후진넨지부쓰(橘夫人念持仏), 백제관음상(百濟觀音像) 등 많은 국보와 중요문화재가 전시되어 있다. ⇒ ⑤유메도노(夢殿) - 동원의 중심이 되는 건물로 본존은 7세기 아스카시대에 만들어진 구세관음(救世觀音)이다. 비불로 매년 봄, 가을에 특별공개된다.

「주구지(中宮寺) 절」 [400엔] - 호류지 동원 바로 옆에 있다. 호류지가 비구 사찰로 창건되었다면, 주구지는 비구니 사찰로 창건되었다. 일본 전국시대인 15세기말~16세기초 무렵 화재로 소실, 이후 재건되었다. 16세기경 천황가문의 황녀가 주지스님이 된 이후 몬세키닌지(門跡尼寺)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존은 백제의 영향을 받은 미륵보살반가상(彌勒菩薩半跏像)이다.

注 : 몬세키닌지 - 천황가문이나 귀족과 관련된 여성이 주지스님으로 있는 절을 말한다.

※1km = 걸어서 약 15분